

전북교육청, 2022 새해 새출발 다짐

김승환 교육감 시무식 개최, 신년사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소개 · 곤궁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끈끈한 지조 강조

전북교육청은 3일 분청 2층 강당에서 2022년 시무식을 갖고, 희망찬 한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각 부서에서 희망자만 참석했다. 그 외 직원들은 근무부서에서 영상을 통해 시청했다.

어린이합창단 '동요샘'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시무식은 국민의례, 1월 1일자 도교육청 전일 직원 소개, 새해 소망 영상 상영, 김승환 교육감의 신년사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무식에 앞서 '로얄 비르투오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출근



김 음악회로 한 해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소개하

면서 "혹독한 추위가 지난 후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안다"며 곤궁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끈끈한 지조를 강조했다.

이날 전북교육에 빛낸 "전북교육이 지니온 11년 6개월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이 아니었을까"라며, "혹한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마지막 빛을 잃지 않았던 송백의 모습에서 전북교육을 돌아본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11년 6개월 동안 전북교육의 모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면서 김수영의 '서시'를 소개하며 신년사를 맺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022학년도 12개 융합전공 운영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창의적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4개의 융합전공을 개설,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총 12개의 융합전공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개발된 4개의 융합전공은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군상담심리학과·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재활상담학과) ▲지역기반 도시재생융합전공(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스마트마케팅학과·토목재난안전공학)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소방행정학과·컴퓨터공학부)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생명과학과·패션스타일링학과·경영학부)이다.

융합전공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과(부)가 미래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첨단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해 단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말하며, 복수전공 이수 시 2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융합전공을 운영, 운영 개선과 고도화를 위해 교육혁신본부(역량개발인증센터)·JINC+사업단·대학일자리본부 주도로 융합교육과정 개발과 활성화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대학교는 신기술 분야를 책임질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혁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융합전공 운영을 통해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올해 전북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올해 주요정책 · 추진과제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6일 2층 강당에서 2022 전북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각과 과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도내 모든 학교 교직원들은 유튜브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을 검색한 뒤 시청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은 물론 각 부서 과장들이 직접 2022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전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

학 교육공동체'를 교육 비전으로 ▲자유와 도전 마음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2022년 주요 정책 및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구현,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생태감수성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심미적 감수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중점 추진과제는 안전한 학교, 미래

혁신교육과 참된 협력성장,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교권 존중과 서로 신뢰하는 학교, 학부모 부담 최소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공정한 교육행정, 차별 없는 교육 실현,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 등이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각급 학교에서는 전북교육 기본 방향을 반영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마련해 3월 새학기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도민 서포터즈 공모

2월 14일까지... 300명 규모 모집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가 도민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300명 정도로, 접수기간은 2월 14일까지다.

초·중·고 및 대학생 외국인 등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www.apmg2023.kr) 및 도청 누리집(www.jonbuk.go.kr), 구글폼(https://forms.gle/BxQy5y7m0MgfkX1JA)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 SNS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며, 도내 주요 행사·축제장을 방문하거나 공식 기념행사 등을 통해 대회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14개 시군,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대형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300명의 도민 서포터즈와 함께 대회의 매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겠다"면서, "도민 서포터즈 모집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2023년 5월 12~20일)가 9일 간 세계 각국에서 10,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내 대학별 시무식 개최

전북대 "응변창신의 자세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3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힘차게 열었다.

올해 시무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등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했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이날 시무식은 정부 포상 대상자에 대한 전수식과 김동원 총장의 신년 인사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는 오미연 과장(대학원교학부)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재성 팀장(간호대학)이 국무총리 표창, 박상범 팀장(교과과)과 박진성 팀장(법학전문대학원), 전부아 직원(기획과)이 각각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대학평가 거점국립대 2위와 자연대 및 농생대, 사대부교 개축 등 683억 원과 시설보수에 산 300억 등 국가예산 확보, 3년 연속 대학사태 평가 지역 국립대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산학협력 분야에서도 지역혁신 에너지를 창출할 산학융합플라자 신축을 본격화 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대응부지도 이끌어 내 2023년 말까지 270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어 김 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전한 캠퍼스 조성하고 교육의 내실화 및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원 혁신사업 등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공조 등도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지역혁신 플랫폼(RIS) 사업과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유치와 그간 주도해 왔던 10개 국가거점국립대 대학 간 학사교류를 더욱 확산하고 시스템을 조율해 나가는 등 대학 교육개혁에도 전북대가 앞장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위드 코로나로 나누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대학의 미래도 달려 있다"며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학생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혁신을 추구에 나가자"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새로운 100년 시작 원년"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온라인 시무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3일 열린 시무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시상, 총장 신년사 순으로 이뤄졌다.

교직원 중 대학발전 기여와 노사관계 유공을 인정받은 우수직원과 부서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부서에 대해 총장포창도 진행됐다. 특히 국립대학 교육정보화 유공으로 김정근 팀장(정보전산원), 국민교육발전 유공으로 김민선 팀장(도서관), 재정관리 유공으로 남성삼 주무관(총무처)이 각각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우영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 우리대학은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도서관 신축예산 175억원 확보하는 등 성과를 얻어냈다"며, "내년이면 우리 대학의 역사가 100년을 기록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된다. 이에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